

“정초부터 여자가 남의 집에 가면 안된다”...금기담 요즘엔 안통해

강희숙 조선대 교수, 한국사학회언어학회 학술대회 논문 발표
금기담 90개 선정 대학생 인식·수용도 조사
의식주·신체·인물 순 인지...타당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

“남자는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여자는 정숙해야 한다.” 등과 같은 금기어(禁忌語)에 대한 인식이 남녀의 성 평등 의식 변화에 따라 점차 무뎠어졌다고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강희숙 조선대 교수(국어국문학과)가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학회언어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금기담에 대한 언어의식 변화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논문에서 드러났

는 단어나 말로, 주로 성적인 표현이나 죽음에 관한 표현 등이 해당한다. 사실 금기어의 본질은 예의를 지키고, 신중한 행동을 유도하는 등 순기능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 문화의 하나로 인식돼 온 금기어에 대해 젊은 세대의 인지도와 수용도는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 논문에는 따르면 조사 대상 90개의 금기담에 대한 인지도는 여학생 35.1%, 남학생 31.1%로 여학생의 인지도가 약간 높았지만, 전체적으로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금기담 가운데 가장 높은 인지도는 보인 항목은 ‘의식주’(남학생 43.4%, 여학생 47.5%)였고, 다음이 ‘신체’(남학생 43.

2%, 여학생 44.9%)였으며 ‘인물’(남학생 10.9%, 여학생 12.4%) 순이었다. 낮은 인지도도를 보인 ‘인물’의 경우 남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성 차별과 관련된 금기는 젊은 세대에겐 거의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금기담에 대한 수용도 면에 있어서도 여학생 14.9%, 남학생 12.3%에 불과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젊은 세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남자는 밥을 먹어야지 누룽지를 먹으면 안 된다’ ‘정초부터 여자가 남의 집에 가면 안 된다’ 등처럼 어우나 정당성이 타당하지 않는 금기에 대해서

는 더 이상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금기담에 대한 인지도 및 수용도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일상생활과 좀 더 친숙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지도와 수용도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다리를 떨면서 밥 먹으면 복답아난다 ▲문턱을 밟으면 좋지 않다 ▲깨진 거울을 보면 좋지 않다 ▲공깃을 너무 바라보면 머리가 벗어진다 ▲이름을 빨간 색으로 쓰면 안 된다 ▲어린애 낳고 초상집에 가면 해롭다 ▲결혼식 날 그릇을 깨면 재수 없다 ▲똥이 아플 때는 초상집에 가지 않는다 등 8개

의 금기담은 비교적 높은 인지도와 수용도를 보였다. 대체로 일상생활이나 의식주와 관련된 금기담이 젊은 세대들이 의식과 행동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강 교수는 “금기 의식이 우리 안에 얼마나 남아 있을지 하는 의문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사교의 분류라 할 수 있는 언어는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의식은 행동을 지배한다”며 “‘금기어’를 통해 의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소통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고 의미를 밝혔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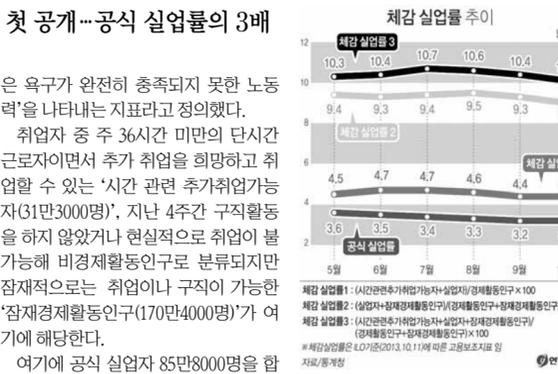


웃음꽃 핀 연탄배달 봉사 광주전남적십자 자원봉사자들과 삼성전자 광주공장 직원들이 12일 오후 남구 월산동의 한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 배달봉사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실질 실업률 10%...일 하고 싶은 290만명

통계청, ILO 기준 고용보조지표 첫 공개...공식 실업률의 3배

10월의 ‘제삼 실업률’이 최대 10.1%로 나타났다. 공식 실업률인 3.2%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다. 실업자에 추가취업 가능자와 잠재 구직자 등을 합친 취업 희망자는 28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는 관련 지표가 고용시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며 확대해서 해석하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 자료에는 ‘고용보조지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실업자 외에도 일하길 희망해 고용시장에 진입 가능한 사람을 분류하고자 작년 10월 새로운 국제기준을 마련했다”며 “이 기준에 따라 세계 최초로 고용보조지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고용보조지표가 ‘일하고 싶



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정의했다. 취업자 중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할 수 있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31만3000명)’,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비경제활동동인으로 분류되지만 잠재적으로는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잠재경제활동동원구(170만4000명)’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에 공식 실업자 85만8000명을 합치면 취업 희망자가 287만5000명에 달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실업자가 많은데도 정부 실업률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었다. 정부가 말하는 ‘실업자’는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고, 일이 주어

지면 즉시 일할 수 있지만 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은 자를 뜻한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고용보조지표는 그동안 언론이나 학계에서 써온 제삼 실업률이나 ‘사실상 실업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국내 입국 크루즈 관광객 사상 첫 100만명 돌파

크루즈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해양수산부는 12일 부산 영도구 동삼동 국제 크루즈 터미널에서 ‘100만 번째 크루즈 관광객 환영행사’를 열었다. 이날 낮 12시 입항한 사파이어 프린세스호(Sapphire Princess·미국 프린세스 크루즈사)에서 내린 미국인 사라 수(Sarah Su)씨가 100만 번째 주인공에 선정됐다. 크루즈 관광객은 2012년 28만 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79만 명으로 급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해수부는 이날 100만을 돌파한 데 이어 연말까지 105만 명이 크루즈를 통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국내에 들어온 크루즈 관광객(9월 기준 89만3169명)은 중국인이 90.2%(80만5517명)로 가장 많았고, 일본인이 3.2%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2015년 부동산 전망과 재테크 설명회

— 신 개발지 실전 투자 설명회 —

코아 부동산 재테크 상담소에서 불황기 소액투자자 가능한 복합수익형 실전 토지 투자법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강의내용

- 토지 시장의 현황과 전망
- 개발지에 성공 투자법
- 토지의 가치 판단법
- 침체기에 대처하는 부동산 시장
- 도시가 형성된 과정을 통한 미래분석
- 서남해안의 대이벤트 집중 분석

일정과 장소

- 2014.11.15(토) 오후 2시~4시
- 첨단 2지구 북광주 농협과 광주은행 사이 J타워 3층
- 예약 문의 : 062)576-7955

주 관 코아토지재테크상담소

김영돈 팀장 (1부) 박종락 대표 (2부)

코아토지재테크상담소 감사 공무원 교육원 외래교수 전남지방경찰청 외래교수

코아토지재테크상담소 대표 (주)해남농장 대표이사

※ 꿈과 열정으로 가족처럼 일하실 프리랜서 여직원 〇명을 모집합니다.